

# 꺼병이

## 1. 일반현황

조사일시	2017. 8.	조사자	박인하	유형구분	문화예술-연구진제안
------	----------	-----	-----	------	------------

대상명	꺼병이
-----	-----

### □ 대상의 개요

보존대상의 특성	유형	물리적형태	책자	보존대상의 가치범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서울단위 <input type="checkbox"/> 마을단위
----------	----	-------	----	------------	--

작가	길창덕	제작년도	1970, 1974
줄거리	<p>반쯤 졸린 눈을 하고 머리에 동그란 땀통자국이 있는 꺼병이는 그저 우리 주변에서 평범하게 볼 수 있는 친구다. 꺼병이가 동네 친구들과 함께 골목에서 뛰어 놀고, 학교에 다니며 벌어지는 일들을 재미있게 그린 만화가 &lt;꺼병이&gt;다. &lt;꺼병이&gt;는 어린이날이 공휴일이 되었던 1970년 &lt;만화왕국&gt;에 첫 선을 보였다. 그 후 1974년 『소년중앙』으로 옮겨 연재를 했고, 1977년 미국에 이민 가는 것으로 만화가 끝이 났다.</p> <p>특별한 줄거리가 있는 만화라기보다는 매일 연재되는 달에 맞춰 에피소드가 진행되는 옴니버스 만화다. 초등학생 꺼병이는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한국 농구팀이 아깝게 경기에 지게 되자 키가 크려는 노력을 하고, 운동회 날 아빠를 찾기 위해 회사에 들렀다 인천까지 찾아가고, 시골에서 사촌이 수학여행을 와 함께 창경원에 구경 가고 하는 등의 이야기가 진행된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에피소드였으며, 그만큼 1970년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나 장소, 아이템 등을 볼 수 있다. 중요한 공간으로 학교와 골목이 자주 등장하고, 골목으로 들어오는 변화기도 묘사된다. 꺼병이 혼자 부모님과 함께 살며 일상생활을 하던 중 경상도 두메산골에서 외할아버지와 살던 동생 꺼실이가 상경하고, 새로운 일상이 시작된다.</p>		
평가	<p>명랑만화가 어린이들에게 큰 사랑을 받은 시기는 1970-1980년대다. 1970년대의 명랑만화는 서울의 감수성, 즉 도시적 감수성을 바탕에 두고 있다. 방영진의 &lt;약동이와 영팔이&gt;가 시골의 감수성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비해 1970년대 명랑만화를 대표하는 &lt;꺼병이&gt;는 서울의 감수성을 보여준다. &lt;꺼병이&gt;에서 에피소드가 발화하는 구체적인 공간은 변화-골목-집으로 이어지는 서울의 주택지다. 전통적인 서울의 거주지와 달리 골목이 넓고 곧으며, 집은 새로운 단층 혹은 이층주택이다. 1970년대 지방의 인구가 서울로 급속히 유입되면서, 서울이 급속도로 팽창되기 시작했고, 농사를 짓거나 개천이 흐르던 서울의 변두리는 빠른 속도로 도시화되어갔다. 서울의 신흥 주택지는 대개 경제개발 이후 조성된 것으로 산, 개천, 연못 같은 자연물은 만화에 등장하지 않는다.</p> <p>명랑만화는 1970-1980년대의 공간을 만화 안에서 공간적, 서사적으로 재현하는데 서울올림픽 이후 급속히 일반화된 아파트의 미장센보다는 단독주택과 골목의 미장센을 보여준다. 집장수들이 지은 주택이 늘어서고, 골목은 시멘트로 포장되었고, 가로등이 설치되었다. 서울로 몰려든 세대의 자녀들은 학교가 끝난 후 골목에 나와 여러 놀이를 하며 놀았고, 가끔 도심이나 부도심으로 멀리 놀러가기도 했다. 이 익숙한 1970년대 도심의 미장센을 보여주는 작품이 &lt;꺼병이&gt;다.</p> <p>2001년 바다출판사에서 재출간한 &lt;꺼병이&gt;를 기준으로 1권의 30개 에피소드 중 골목의 모습으로 시작된 에피소드가 21개며, 방안에서 시작된 에피소드가 6개 그리고 도심 1개, 학교 1개, 일출판 1개다. 수치상으로 70%가 골목에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골목에서 출발한 이야기는 골목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담을 수밖에 없다. 달리기대회, 거짓말대회 같은 다소 황당한 에피소드는 물론 생일잔치, 수학여행 온 친구들, 꽃밭 만들기, 캠프언 되기, 수영장 가기 등의 일상적인 에피소드가 진행된다. 골목에서 에피소드가 시작된다는 말은 골목에 모</p>		

	<p>인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p> <p>&lt;꺼병이&gt;가 보여준 골목의 미장센을 보면, 열린 대문이 있고, 쓰레기통이 있으며, TV안테나가 있고, 골목 끝에는 파출소가 있다. 학교가 있고 만화가게가 있으며 작은 개천을 끼고 뒤에는 야트막한 산도 있다. 이 공간은 공동체의 정서를 완전히 앗아가지 않았으며, 거대한 아파트의 숲처럼 사람을 지배하지 않았다. 평수로 계급을 나누지도 않았으며, 분양과 투기의 매커니즘에 의해 주도되지도 않았다. 1970년대의 골목은 삶과 함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의 명랑만화가 보여주는 일상의 공간도 보편적인 경험이라기보다는 제한적인 경험이다. 1970년대 길창덕, 신문수, 윤승운의 명랑만화는 도시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경험에 기반한다. &lt;꺼병이&gt;를 보더라도 엄마와 아빠가 있고 자기 집이 있으며, 어린이날과 크리스마스 같은 이벤트에 동참할 수 있는 경제력을 전제한다. 명랑만화, 특히 당대의 대표적 명랑만화인 &lt;꺼병이&gt;에는 1970년대의 대표적 공간인 골목이 있다.</p>
--	--

## 2. 보존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70년대 한국만화의 메인스트림은 잡지와 신문 등에 연재되는 명랑만화였다. 명랑만화의 작가 중 독자들에게 가장 사랑받은 작가는 길창덕이고, 가장 사랑받은 만화가 &lt;꺼병이&gt;다. 명랑만화는 ‘일상성’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는 당대 어린이들이 일상 안에서 발견하는 웃음이나 판타지를 즐겼기 때문이다. 때문에 &lt;꺼병이&gt;는 당대의 공간을 충실히 일상적으로 재현하는 작품이다.</li> <li>- 작가가 서울에서 작품생활을 했기 때문에 골목의 모습은 서울의 일반적인 중산층 주택가로 그려지고 있으며, 서울역이나 창경궁 같은 서울의 명소가 작품 안에 곧잘 등장한다.</li> </ul>
--


## 3. 활용방향

<p>시민홍보를 통해 작품의 가치를 일반 시민들과 공유</p>
------------------------------------

## 4. 소유자(관리자) 면담

면담자	
면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 잡지 『소년중앙』은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 등에 보관되어 있다.</li> <li>- 1979년 백제출판사에서 첫 번째 단행본이 출간되었다. 두 권으로 출간된 1979년 백제판 단행본은 1970년, 1974년 연재분 전체를 수록하지 않고 선택해 수록했다. 이후 출판사를 바꿔 여러 번 재판되었고 최종적으로 2001년 바다출판사의 복간본을 끝으로 더 이상 재판이 나오지 않는다.</li> <li>- 고 길창덕 작가는 원고를 많이 보관하고 있지 못하며, 연재되어 매체에 게재된 원고는 별도 스크랩북에 보관되어 있다. 고 길창덕 작가의 자료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유족들이 보관하고 있다.</li> </ul>

5. 인물(사건)에 관한 기본정보

이름	길창덕(1929-2010)	인물사진 
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29년 12월 11일 평안북도 선천에서 태어났다. (1930년 1월 10일로 출생신고가 되어 일부 자료에서는 1930년 생으로 기록)</li> <li>- 1944년 고등과(당시 소학교 졸업 후 중등, 고등과정을 2년에 가르쳐주는 속성 과정) 졸업 후 15세의 나이로 철도국에 취직</li> <li>- 1951년 1.4 후퇴 당시 월남하여 군 입대. 제주도에서 근무.</li> <li>- 1953년 화랑무공훈장 수훈 (6.25 참전용사)</li> <li>- 1955년 &lt;서울신문&gt;에 독자 투고 만화 「공처가(恐妻家)」, 「박인수 사건(朴仁秀 事件)」, 「입체영화 이문(立體映畵 異問)」 등으로 만화계에 데뷔</li> <li>- 1956년 월간 &lt;실화(實話)&gt;에 4컷 만화 「허서방」 발표</li> <li>- 1959년 월간 &lt;아리랑&gt;에 국내 최초 잡지 장편 연재 만화(7페이지) 「홀쭉이와 똥똥이」를 연재</li> <li>- 1965년 만화방용 단행본 만화 출간(&lt;말썰장이 그림자&gt;, &lt;머저리 조합장&gt; 등)</li> <li>- 1966년 &lt;소년한국일보&gt;에 &lt;재동이&gt; 연재</li> <li>- 1970년 월간 &lt;만화왕국&gt;에 &lt;꺼병이&gt; 연재</li> <li>- 1973년 중앙일보사에 편집위원 입사, 「나원참 여사」 연재</li> <li>- 1980년 &lt;순악질 여사&gt; 영화 제작 개봉</li> <li>- 1997년 건강문제로 작품 창작 종료</li> <li>- 2001년 만화우표 시리즈 ‘꺼병이’ 우표 출시</li> <li>- 2009년 한국만화 100주년 위원회 고문</li> </ul>	
주요작품 및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66년 &lt;재동이&gt;(소년한국일보)</li> <li>- 1969년 &lt;돌석이&gt;(학원)</li> <li>- 1970년 &lt;꺼병이&gt;(만화왕국), &lt;순악질여사&gt;(여성중앙), &lt;만복이&gt;(소년중앙)</li> <li>- 1974년 &lt;신판보물섬&gt;(새소년), &lt;꺼병이&gt;(소년중앙)</li> <li>- 1975년 &lt;박달도사&gt;(새소년)</li> <li>- 1976년 &lt;털링이&gt;(어깨동무)</li> <li>- 1977년 &lt;선달이여행기&gt;(새소년), &lt;쪽쟁이&gt;(소년중앙)</li> <li>- 1978년 &lt;이웃집 돌네&gt;(소녀생활)</li> <li>- 1980년 &lt;순악질납편&gt;(주부생활), &lt;다부지&gt;(어깨동무)</li> <li>- 1982년 &lt;고집세&gt;(만화보물섬)</li> <li>- 1983년 &lt;한국의 역사순례&gt;(중앙문화사)</li> <li>- 1984년 &lt;꺼병이&gt;(소년조선일보)</li> <li>- 1987년 &lt;코메디 홍길동&gt;(소년중앙)</li> </ul>	
수상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74년 서울시 어린이 애호 공로상</li> <li>- 1981년 색동회상</li> <li>- 2002년 대한민국출판만화대상 공로상 수상</li> <li>- 2003년 보관문화훈장 수상</li> <li>- 2006년 서울국제만화페스티벌(sicaf) 만화부문 공로상 수상</li> </ul>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길창덕 관련 연구서로 인터뷰에 기반한 박인하의 &lt;길창덕, 꺼병이로 웃다, 순악질 여사로 살다&gt;(2002, 하늘아래)가 있다.</li> </ul>	

## 6. 기사사항

- 관련기사 - '네이버지식백과 한국만화정전 <꺼병이, 길창덕 - 우리가 지켜야 했던 모든 것>'(박석환)

길창덕의 [꺼병이]는 1970년 [만화왕국]에 연재된 명랑만화이다. 1974년 [소년중앙]으로 옮겨 연재됐고 1977년 완결됐다. 꺼병이네 가족을 중심으로 70년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던 크고 작은 고민들을 재미있는 에피소드와 함께 담아낸 걸작으로 [재동이] [순악질여사] 등과 함께 길창덕의 대표작이다. 1980년 이화여대에서 진행한 한 조사에서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만화로 선정된 바 있고 1999년 부천만화정보센터(현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지정한 캐릭터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 2001년에는 꺼병이 만화 우표가 발행되기도 했다.

주인공 꺼병이는 머리에 기계충(두부백선 : 머리의 뿌리에 곰팡이균이 기생하는 질환) 자국이 있고 반쯤 졸린 눈을 한 초등학생으로 조금 모자라지만 여리고 착한 친구이다. 시골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상경한 여동생 꺼실이, 엉뚱한 꺼병이 때문에 하루도 편할 날 없는 부모님이 주요 등장인물이다. 잡지에 월 1회 연재된 작품으로 그 달의 이슈가 곧 중심 소재가 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시추에이션 드라마 같은 식으로 3월이면 입학식, 5월이면 어린이 날, 8월이면 여름방학을 다뤘다. 이 같은 작품 형식은 자연스럽게 주 독자인 어린이들에게 그 달에 있을 사회적 중대사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게 만들었고 그 시기에 지녀야 할 자제나 태도를 알게 했다. 휴일이면 어린이 대공원이나 창경원에 놀러가고 방학에는 시골 친척집에 방문했다. 여름휴가는 해수욕장으로 가고 방학숙제를 하느라 고민한다. 겨울에는 뛰어 놀기 바쁘지만 불조심도 해야 하고 불우 이웃도 도와야 한다. 물론 평일에는 학교에 가고 골목길에서 놀거나 주변 지역을 돌아다닌다. 아버지 회사에도 자주 가고 근처 상점을 비롯해서 병원, 은행 등에도 자주 간다. [꺼병이]는 이처럼 주인공의 일상을 통해 70년대 도시 중산층의 삶을 모델화하여 제시했다. 도시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사는 이들도 있었고 이하의 삶을 사는 이들도 있었을 터. 꺼병이는 그들에게 도시화된 삶의 보편적 기준과 생활방식, 어떤 사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신념을 매우 자연스럽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다.

누구도 꺼병이가 특정일(어린이날, 어버이날 등)에 펼치는 못 말리는 말썽을 따라하라고 하는 이는 없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사태를 수습하고 교훈을 얻어가는 과정을 담은 만화 [꺼병이]에 대해서는 독서를 권장했다. 그 작품 안에는 그 시절 '우리가 지켜야 할 모든 것'이 담겨있었기 때문이다. 70년대는 군부독재 하의 정치적 불행과 군사적 불안을 급격한 도시상공업화와 '잘 살아보세'라는 표어가 위안하던 시기였다. 아이나 어른 할 것 없이 그 같은 불행과 불안, 변화에 대한 스트레스를 지니고 있었으나 '미치고 팔짝 뛴' 일이 있어도 조금 모자란 듯 '꺼병이'가 되면 보편적 도시 삶의 질서 안으로 편입될 수 있다는 환상을 줬다. 만화 [꺼병이]는 그 같은 불안과 희망을 흐린 데 없이 밝고 환하게, 말 그대로 '명랑'하게 펼쳐보였다. 그것이 당시 정권의 통치철학이나 교육이념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길창덕이 그려낸 꺼병이는 '동일할 수 없지만 지울 수 없는 그 시절 우리의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다.

출처: 네이버지식백과 2013.1.15.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575863&cid=59065&categoryId=59073>)

- 만화 <꺼병이> 표지(1979년 최초로 단행본화된 백제판 중 <꺼병이와 꺼실이> 표지)

